현대오일, 저소득층 아동에 장학금 2억원

현대오일뱅크 1%나눔재단(이사장 김창기)이 저소득층 아동 100명에게 연간 2억4000만원의 장학금을 지원한다.

1%나눔재단은 1월15일 코리아나호텔에서 저소득층 아동에게 장학증서를 전달하는 <사랑의 어부바 캠페인> 행사를 진행했다.

<사랑의 어부바 캠페인>은 전국 초등학교에 재학중인 저소득층, 조손·결손 가정의 아동을 선정해 1년 동안 월 20만원의 장학금을 지원하고 멘토링, 문화공연, 산학체험 등 각종 후원활동을 펼치는 사업이다.

재단은 전국 지역사회복지관, 초등학교장 등의 추천을 받아 수혜 아동을 선정했다.

현대오일뱅크는 2011년 9월 노사가 뜻을 모아 임직원 <급여 1% 나눔 약정식>을 하고 기금을 투명하고 체계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1%나눔재단을 설립했다.

<화학저널 2013/01/15>

Copyright ⓒ 1991 by CMRI